



# 治山治水가 治國의 길

— 環境保全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한다 —

朴 昌 根

〈(社)環境教育會 委員長〉

## 1. 엄청난 水害 피해

〈死亡 실종 184 명 · 771 億 피해〉 〈이재민 20 만명〉 〈서울 대홍수 2 萬채침수 9 萬명 繫急대피〉 〈風納 · 城内 · 望遠洞 잠겨〉 〈限界 드려낸 洪水조절 「댐」〉 〈遊水池 태부족… 排水門도 허술〉 〈3 시간 暴雨에 白旗든 수도권 水防〉 〈食水 · 전기 끊어져 춥고 배고픈 밤〉 〈生必品 사재기 소동〉 등등…

335%의 호우가 끝난, 다음 날(9월 3일)夕刊新聞(東亞日報 · 中央日報)에 난 큰 제목을 대충 읽어보았다. 한마디로 아비규환이다. 이 결과는 그동안 우리가 해온 治山治水가 잘못되어서 일어난 결과라고 본다.

비가 조금만 많이 오면 水害요, 조금만 안 오면 旱害라고 해서 야단 범석을 치기 몇번이였던가?

흔한 俗談으로 〈소 잊고, 와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事前에 준비 못한 것을 비웃는 얘기지만, 그래도(때 늦게나마)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意志가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해마다 많은 〈소〉를 잊었으면서도 와양간을 고쳐야겠다는 근본적인 자세를 취하기보다는 그때, 그때마다 이러쿵 저러쿵 死後藥方

文식으로 떠들고 나면, 그만이였다.

왜?

〈소 잊고, 와양간 고치는〉 非理를 창피하게 생각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설마 더 〈소〉를 잊겠느냐는 배짱 때문이였는가? 그도, 저도 아니면 더는 잊어버릴 〈소〉가 없다고 간단히 포기했기 때문이였는가?

창피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이였건, 배짱 때문이였건, 아니 포기했기 때문이였건 간에 〈와양간을 고쳐야한다〉는 그 지극히 당연한 대책을 외면함으로써 일어난 이번의 水害는 그 피해가 너무나 엄청나다.

글자 그대로 舉國的인 피해다. 드러난 피해가 이정도지만 안 드러난 피해까지 합치면 더욱 엄청날 것이고, 이를 복구하기 위한 경제적 부담과 人的, 時間的 노력까지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이번 피해는 막대할 것이다.

## 2. 이번 水害는 天災之變이 아니다.

이번 水害를 간단히 天災之變 쪽으로 둘려, 마무리 하려는 사람이 있다. 天災之變 보다 무섭고 위험한 人災之變이 아닐수 없다.

9월 3일자 동아일보 〈휴지통〉자는 “廉普鉉 서울시장은 2일 水害地域을 시찰키 위해 서울

麻浦區 望遠洞 일대의 침수 현장에 나갔다가 수해 예방행정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퍼지못한 서울시를 힐난하는 주민들의 항의를 받고 적잖게 당황… 廉시장은 유수지 근처에 모여있던 1천여명의 주민들이 「왜 구청 측은 주민들의 유수지 봉파신고를 받고도 알았다는 말만 할뿐 일찍 보수할 생각을 안했느냐」며 「빨리 보수공사를 서둘러 달라」고 언성을 높이자 「지금 자연과 싸우고 있어 어쩔수 없으니 협조해 달라」는 답변만 되풀이… 시장에게 하소연해도 별 뾰족한 수가 없음을 안 주민들이 발길을 돌리려하는 순간 廉시장을 수행했던 한 경찰간부가 「수고하는 시장님께 박수를 보내자」고 했으나 경찰관 3, 4명만 박수를 쳤을뿐 주민들은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고 냉담한 반응…”이라고 적고 있다.

사실 그대로라면, 이런 시장의 시정 아래에서 서울이 이정도의 水害로 끝난 것을 천만다행으로 여겨야 한다. “자연과의 싸움”이라니, 설마 싸움을 좋아해서 싸움운을 하고 … 불경스럽게 자연과의 싸움이라고 하는지… 시장 말대로 싸움이였다면, 그것은 설마하는 安易와 적당히 넘어간 行政無能 그리고 오만한 褒撫과의 싸움이었지 결코 자연과의 싸움은 아니었다. 자연을 한낱, 싸움의 대상으로 본다면, 염치없는廉시장이요. 市長이 어찌, 市場의 바가지 상흔 같은 말씀을 하시나? 인간의 無能을 자연의 순리에 바가지 씌우지 말아야 한다.

天災之變이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재앙을 말한다. 그것은 그 옛날, 科學이 발달되기 以前, 技術도 物資도 없었던 시절의 재앙이다. 그러나 오늘날, 高度로 발달한 기계 문명 속에서 天災之變이란 극히 특수한 몇가지 경우(번개에 의한 山火, 해일, 지진, 화산폭발등)以外에는 모두 人間의 지능과 科學技術의 힘으로 事前, 事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댐 조절과, 水門의 파괴, 下水의 역류 등으로 인해 생긴 水害는 결코 天災之變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곧잘 남의 탓을 하는 나쁜 버릇이 있다. 그래서 俗談에도 <잘되면 내 탓이요, 못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도 있는데, 비 때문에 일어난 피해라고 해서 무조건 天災之變이라고 우기다면, 大氣汚染도 空氣가 汚染되어서 생긴 결과니, 天災之變이요, 水質汚染도 물이 汚染되어 일어난 결과니 天災之變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능히, 人間의 힘으로 事前에 예비할 수 있었음에도 그것을 소홀히 했거나 외면함으로써 일어난 피해를 이제와서 天災之變이라고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은 한심하다기보다 서글프기 짜이 없는 行政無能之變이다.

서울의 홍수를 제어하는 댐의 경우를 보자. 댐은 한강 상류에 모두 6개가 있으나 “이중 다목적 댐인 華川·昭陽江 댐만이 홍수조절 기능을 갖추고 있을뿐 나머지 댐은 發電 및 用水용이어서 홍수 조절에는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이 두 댐과 다른 4개 댐이 滿水位에 가까울 때 홍수 피해는 하늘에 맡길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홍수를 대비해 홍수 조절 댐을 더 높리거나, 현재의 댐에 조절 용량을 크게 늘리는 것은 “2백년만에 한번 올까 말까한 홍수를 위해서는 낭비(?)라는 설명이다.”

즉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댐에 알맞는 水量 만큼 비가 와야지, 그 이상 오면 안되고(가능하다면 行政命令을 내리고 싶을 것이다) 만약 그 이상 비가 와서 水害를 입게되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天災之變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다.

서울 望遠洞의 浸水 경우는 望遠 유수지의 水門이 “水壓에 못이겨 터지는” 바람에 江물이 逆

流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유수지는 지난 72년 8·19 수해후 74년 S토건이 유수지 공사를 한데 이어 80년 6월 H건설이 성산대로를 건설할 때 다리 교각이 배수관로를 건드리게 되자 배수관로 공사를 새로했는데 이때 설계 잘못이 아니었는지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 당국에서도 “水門이 무너진 것은 당초의 공사 부실과 평소의 관리 소홀(노후가 발견됨)이 겹쳐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新亭洞 지역의 浸水 원인도 人災로 “주민들은 비가 내리기 시작한 31일 저녁부터 펌프장을 찾아가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으나 펌프장 측이 이를 묵살, 1일 새벽 4시경 펌프장을 찾았을 때도 배수시설은 아예 가동조차 않은 채 담당직원들이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이다.

뿐만이 아니다. 望遠洞의 경우 “주민과 유수지 관리직원이 2일 상오 8시 30분 이전에 배수문 양쪽에서 물이 샰다는 것을 구청에 신고했으나 2시간 동안 전혀 손을 쓰지 않았다”거나 事前에 미리 위험을 경고해 대피하게 했던들 열마간의 재해 도구를 전겼을 것이라는 주민들의 한결 같은 원망이고 보면, 이번 水害는 확실히 天災之變이 아니라는 것이 들어난다.

### 3. 治山治水가 곧 治國의 길

治國의 처음은 治山이요, 그 마지막 매듭은 治水로 매듭짓는다고 했다. 즉 山을 잘 가꾸고 물을 잘 다스리는 것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根本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그동안 왜 이 治國의 가장 평범하고 쉬운 理致 하나도 實行하지 못했는가?

그때, 그때마다 혼리하고 쉬운 일만 선택하고, 눈에 그럴듯하게 들어나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기에 급급했던, 과오를 하루 빨리 시정하고 비록 느림망정 또 어렵고 불편해도 확고하고 튼

튼한 일에 모든 行政力を 집중해야 되겠다.

“水災때에 水災의 위험을 말하기는 쉽고 누구나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구름 하나 없는 晴天에서 水災에 대한 점검을 말한다는 것은 반드시 쉬운 것은 아니다.” 이제 당국에서는 〈漢江 종합 治水대책〉을 곧 마련한다고 한다. 많은 〈소〉를 잃어버린 후의 〈의양간 고치는 일〉이겠으나 더 많은 〈소〉를 잃기 前에 꼭 實行해야 될 용기로, 共感의 격려를 보낸다. 그리고 그 對策에 이것만은 꼭 참고해 주기를 바라는 당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을 정말 보호하는 방향으로 행정력을 구사해야 한다. 어깨띠나 두르고, 현수막을 쳤다고 해서 자연이 보호되는게 아니다. 자연을 성심 성의껏 모시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연보호는 자연의 순리에 따라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어야 한다. 몇몇 사람들 입 맛에 맞거나, 당장 보기 좋고, 쓰기 좋다고해서 자연을 적당히 가꾸는 식의 자연보호여서는 안된다.

둘째, 모든 산과 들에는 나무를 심어 산과 들을 푸르르게 해야한다. 1년에 한, 두어번 식목일을 정해 놓고 묘목 몇 그루 심었다고 해서 治山이 되는 것이 아니다. 때와 장소를 가릴것 없이 틈틈히 매일 나무를 심어야 한다. 이번의 경우도 산과 들에 나무가 울창했던 빗물이 그렇게 일시에 또 많이 강으로 몰리지 않았을 것이다. 나무를 심고 가꾸는 정신이 아주 몸에 깊이 베이도록 하는 어떤 획기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셋째, 도시에 나무를 심어야 한다. 나무가 없는 도시는 살아있는 도시라고 할 수 없다. 도시에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活力を 심는 것이며, 그것은 그 도시민의 정신에 活力を 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오늘 날, 도시에 나무가 없어 약간의 대기오

염 물질에 의해서도 도시의 대기는 크게 오염되고 있다. 그래서 도시민들은 아주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싫증을 느끼고, 불만(?)이 많아진다. 나무가 없어 汚染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도시를 온통, 나무의 숲으로 푸르게 해보라! 오염이 없는 평화로운 도시 환경에서 모두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큰 일에도 밝게 웃을 것이다. 애써 治安을 위해 전경대원을 거리 곳곳에 세워 놓지 않아도 될 것이다. 마음에 여유가 생긴 시민들이 治安을 어지럽히는 사람을 타이를 것이다. — 마음을 넓게, 크게, 높게 갖고 살자고 .....

넷째, 全國土의 地形, 地質을 다시 원점에서 종합적으로 철저히 조사 연구하여, 그에 따른 장기적인 안목의 國土開發(파괴가 아닌 保全을 전제로한 ...)計劃을 수립해야 한다.

國土開發은 무엇을 어떻게 해볼까가 아닌, 무엇을 어떻게 안해도 될까 하는, 차원이어야 한다. 그동안 기적적으로 살아 남은, 全國의 Green belt가 오늘 날, 이만큼이나마 환경을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명심해야 한다. 무엇이던지 들추고 파헤치면 먼저(오염과 파괴)가 난다. 그대로 두고 잘 이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다섯째, 全國의 강에는 대규모의 下水處理場이, 도시에서는 완전한 下水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 이번의 水害 때문만이 아니다. 물의 흐름을 어떤 형태로라도 막아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오염된 물을 그대로 흐르게 해서는 안된다. 귀중한 물이라는 인식으로 정성껏 깨끗이 해서 흐르도록 해야 한다.

이번의 水害는 量的인 피해였기 때문에, 땜으로, 모래가마니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지만, 質的인 피해, 즉 水質污染에 의한 피해는 땅이나, 모래가마니 따위로는 어림도 없는, 아니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天災之變과 같은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다.

따라서 지금 열심히 추진되고 있는 〈漢江 종합開發공사〉와 〈落東江 하구언 工事〉 등 기타 물을 다스리는 모든 工事는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 4. 다시,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호소한다

독일의 유명한 정치가 「비스마르크」는 독일 국민들에게 “山林의 황폐에 의한 내환을 敵軍의 외환보다 더욱 경계해야 한다”고 외쳤다.

治山治水야 말로 國家를 強하게, 富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敵을 지척에 두고 있는 우리의 現實로도 그 어느 때보다 環境이 중요하게 保全되어야 할 때인 것이다.

지난 號, 本誌 時論에서 나는 環境의 自發的인 保全을 위해 一體感 조성을 호소하고, 그 동기를 위해 국민적 합창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團合의 合唱. 그것을 부르며 官民이 合心해 산과 들 도시 곳곳에 나무를 심고, 본래 깨끗한 물 그대로 잘 흐르도록 길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自然의 順理대로 살줄 알아야 한다. 물의 경우만 보자 ...

물은 한방울 두방울 모여, 계곡을 돌아 바위틈을 지난다. 그리고 땅에 스미기도 하고, 폭포도 된다. 내가 모여 江을 이루고, 그리고 바다로 흘러 큰 合唱을 이룬다.

물은 때에 따라서 굳어지고(얼음), 날며(수증기), 흐른다. 그러나 굳었다고 해서 둘이 아니고, 날았다고 해서 새도 아니다. 특히 흐른다고 해서 새월이 아니다. 順理에 따라 잠시 변했을 뿐 물은 물인 것이다.

환경보전은 인류의 처음이자 마지막 지혜인 것이다. \*